

3) 강제동원의 방법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한국(남한)에서 진행하여 온 '군위안부'에 대한 증언조사 및 증언기록 자료에 입각하여 볼 때, 식민지 조선에서 '군위안부' 모집은 개인업자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이 체계적이고 대담하며 대규모로 행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그간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강제연행의 방식과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표1>은 조선인 '위안부' 동원 경위의 윤곽을 보여준다.¹⁾

(표1을 여기에 넣어주십시오)

<표 1>은 남한과 중국(10명)에 거주하고 있거나 별세한 43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조선에서 끌려간 '군위안부'가 8만에서 20만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43명이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3명의 증언을 통하여 연행시기, 지역, 방법 등, 조선에서 위안부 동원의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행 시기는 1934년부터 1945년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조선에서 위안부 연행은 1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 사업이며, 일제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 침략전쟁과 일치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중에서 특히 1940년대 초반에 연행시기가 집중되어 있어서 대동아전쟁(1941년) 이후에 위안부 연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행당시 '군위안부' 여성들의 나이는 11세부터 28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연령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한 조선인 처녀들이면 모두 연행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1, 12, 13세와 같이 어린 소녀들을 '군위안부'로 연행하였음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이다.

지역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전지역에서 '군위안부' 동원이 이루어졌다. 위의 표에서는 북한지역보다는 남한지역의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본 조사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 점은 북한지역 조사결과를 종합한 후에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볼 때 남한지역 중에서는 경상도 지역의 여성이 전체 여성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이 특기할 만하다. 이것은 경상도 지역에서 '군위안부' 연행이 보다 극심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는 경상북도와 남도, 전라남도와 북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등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위안부 동원이 한국(남한)의 전지역에 걸쳐서 행해진 체계적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인 '군위안부' 동원체계가 조선총독부 산하 관조직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군이 조선총독부 총무국에 의뢰하면 조선총독부는 각 도에 지시하고 각 도는 각 군에 지시, 그리고 각 군은 각 면에 지시하여 면장 책임 아래 조직적인 동원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신영숙 & 조혜란, 1997: 240). 이렇게 볼 때, 조선의 '군위안부' 사업은 일제의 군과 행정부에 의한 조선에 대한 완벽한 통제, 즉 식민지 지배라는 상황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1) 이 표는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증언1집(1992)과 <중국으로 끌려간 군위안부들>(1995)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신영숙 & 조혜란(1997)의 표에 증언 3집(1998)의 증언을 포함하여 재구성한 것임.

연행의 경위는 절대 다수가 취업을 빙자한 사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과 관(이장)을 동원한 협박이 결합된 형태도 나타난다. 이외에도 산에서 나물을 하는데 차에 실어간 경우도 있으며, 기차를 타고 고향에 오는데 기차에서 강제로 연행할 경우도 있으며 인신매매도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증언 3집에 토대로 강제연행에서 자행된 범죄를 하나씩 지적하기로 하겠다.

(1) 사기

취업사기는 '군위안부' 연행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증언 1집과 증언 2집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증언 1의 연행의 성격을 보면, 전체 21사례에서 취업사기는 13사례로 연행방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진성, 1992: 20), 증언 2집에서도 13 사례 중 9명이 취업사기로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진성, 1997: 7). 증언 3집에서 볼 때, 역시 취업사기는 전체 14 사례 중 9사례가 해당된다. 그러면,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친언니와 함께 연행된 김소란의 경우, "병원에 봉대 같은 것 씻어주고 치워주고 그러면 한 달에 돈 얼마씩 받는단다, 한 일 이년 벌어가 와 잘 살면 되잖아 (1999:49)"라는 말에 위안부 모집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김소란은 필리핀 마닐라 근방에 도착하여서도, "나는 병원에서 일한다니까 병원만 찾아봤어요. 그런데 큰 병원이 있더라고요. 이제 내 일할 자리 구나 (1999:51)"라고 할 정도로 강제동원의 이유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1941년 열여덟의 나이로 끌려간 신현순의 경우에도, 조선사람과 함께 찾아 온 일본사람이 "간호원 시험보라고" 해서, 보국대로 가느니 간호원이 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1999:295). 신현순은 패타리 가면서도, "간호원 가는 줄 았았지, 적십자기가 달려 있는 '헤이요마루'라는 병원선(1999:296)"이었다고 기억한다. 이와 같이 전 중군 위안부 대다수는 돈을 벌게 해준다는 취업사기에 속아서 위안부의 길에 걸려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여성들이 단순히 속았다기 보다는, 협박과 인신매매와 같은 다른 특성이 사기와 결합되어 있다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위안부 모집 취업사기가 단순한 개인적 사기가 아니라 군과 관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1942년경에 연행된 김은례는 다음과 같이 연행당시를 증언한다.

"일본인 순사와 조선인 순사, 이렇게 두 명이 찾아온 거야... 할머니한테 나를 "일본에 있는 방직공장에 보내야 한다"고 통고했다는 거야. "거기 가서 3년 만 일하면 돈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며칠 뒤에 다시 올 테니까 옥실이(김은례)를 어디 재보재지 말고 꼭 집에 붙어 있게 하"고 하고 갔다고 하대. 만일에 "도망가고 없으면 우이 식구 모두를 총살시킬 줄 알라"면서 무섭게 협박까지 하고 갔대요. 그러니 어떡해?"... 나도 이국 땅에 혼자 가는 게 무섭고 싫었지,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 내가 안 가면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인다는데 (1999:123-124).

여기에서 취업사기는 단순한 사기라기보다는 힘에 의해 가해진 협박과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가족들과 본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없앨 수도 있는' 권력에 의해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이 위안부 동원에서 그렇게 만연한 취업사기는 일제에 의한 무력통치 속에서 가능한 제도적 범죄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의 예는 가난한 가정의 출신인 자신이 부유한 가정의 딸로서 대신 연행되었던 경우를 보여준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열다섯 살 때, 먼 친척집에서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던

최화선(가명)에게 동네 이장이 접근하였다. 이장은 “너 공장에 가면 이제 참 좋다. 이집 저 집 댕기면서 사는 것보다 공장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좋은 데로 보낸다”고 하여서 그길로 끌려가게 된다. 이장이 태우는 차를 타고 대구까지 와 보니 이장이 잘 아는 “변화하게 사는 집”에 당도한다. 그 집 엄마는 이 할머니에게 “오늘부터 너는 최화선으로 있어야 한다. 그 딸 대신 보낸다”고 그래, 그 집 넷째딸이 최화선이라, 그 딸이 내 또래였어 (1999:194)”라고 술회한다.

이후 할머니는 ‘최화선’으로서 갖은 고초를 다 당하게 된다. 이러한 증언은 위안부 동원이 길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역적 할당과 같은 조직적 집행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취업사기’는 그러한 조직적 배분이 집행되는 표피적 수단이었을 뿐이다.

다른 한편, 표면적으로는 취업사기인데 그 내면에는 위에서 살펴본 조직적 배분과 인신 매매 수법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사람 집에서 식모노릇을 하던 열 일곱 살이었던 김옥주에게 하루는 그 집 주인인 일본군인 마쓰모도가 “인천으로 일하러 가겠느냐”고 권유하였다고 한다. 당시 김옥주는 한 달에 2원을 받고 있었는데, 8월씩 주는 데를 소개받으면서 세 달치 월급 24원을 선불로 받게 된다. “집에 이십 원 주고 어머에게 썼지, 나는 사원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놈 가지고 옷도 해 입고(1999:95).” 그러고 나서 “마쓰모도는 일본 남자 둘에게 날 넘겼어. 한 사람에게 히라키상, 히라키상 그러더라고... 히라키는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고.” 할머니는 “내중에 알고 보니 마쓰모두는 알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속인게지(1999:96)”라고 증언한다. 이렇게 김옥주가 받은 선불로 미루어 보다 김옥주를 대상으로 돈이 이미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군인 쇼조(특무상사)였던 집 주인의 취업사기는 김옥주에 대한 인신매매와 동시에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인신매매는 고위 군인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에서 조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연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군위안부’ 취업사기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증언에서 볼 때, ‘군위안부’의 동원은 군, 경찰, 행정조직 관계인물과 같이 민간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이다. <표 1>에서도, 일본군인, 군복입은 사람, 마을 반장, 군인, 순사, 정내회 남자, 군인 등이 연행자로 기억되고 있다. 증언 3집에서 볼 경우에도, 군복입은 사람(이남이), 군복입은 한국남자(김군자), 일본인과 조선인 순사들(김옥주), 일본인 순사(조순덕), 이장(최화선), 일본인 시청직원(김유감)과 같이 군과 관, 공무원이 위안부 정집에 직접 활동하였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증언집 1집에도 나타나서 전체 21사례 중 관, 군인, 군속에 의한 연행이 13사례에 달하고 있다(정진성, 1992:20). 이것으로 볼 때, 취업사기를 ‘개인업자’의 소행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더 나아가 취업사기를 개개인의 취업사기로 개념화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사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거짓정보, 정보부재, 정보은폐라는 상황이다. 즉 자신이 취업할 장소, 조건, 책임자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또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다. 또한 그러한 사기가 10여 년 동안 수만에 헤아리는 어린 여성들에게 자행되었는데도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오히려 은폐되고 조장되었다. 따라서 이 ‘취업사기’를 취업사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피폐한 조선의 경제상황, 둘째, 질병 정용과 같이 전시동원체제라는 맥락, 셋째 당시의 군과 행정기구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적극적 지원, 요컨대, 이상의 취업사기는 식민지 전시 상황이라는 조건 속에서 행해진 취업을 가장한 강제 동원의 성격을 보여준다.

(2) 인신매매

‘군위안부’ 동원시에 만연한 취업사기의 이면에는 인신매매의 행위가 존재한다. 한편 취업사기를 동반하지 않은 인신매매도 나타난다. 일본에 있는 언니의 집에서 조카를 보아주고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하던 하영이(가명) 할머니가 그 경우이다. 하영이가 열 다섯 살 되던 1936년경, 이웃의 한국인 아줌마는 “내가 한국에 데려다 줄게, 나도 한국에 나간다”고 하면서 23일 후에 어디로 나오라고 했다. 배 타는 곳으로 나를 데려온 아줌마는 그곳에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했다. 인계받은 아줌마는 일본인이었다.... 그 곳에서 큰 연락선을 탔는데 배 안에는 나만한 여자애들이 십여명 더 있었다.... 그 후 안 일이지만 그 여인이 대만까지 날 데려가 그곳에다 나를 팔아먹은 것이다(1999: 278)“라고 술회한다.

이외에도 취업사기와 병행하지 않은 인신매매는 아버지, 남편과 같은 가족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가 나타난다. 날마다 술에 파묻혀 사는 아버지를 두었다는 조남례 할머니는 “아버지는 이웃에 살던 한국인 남자에게 돈을 받고 나를 팔아 넘겼다. 아버지는 돈밖에 몰랐다(1999:265)”고 증언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신매매를 단순히 ‘하층가족’에서 있었던 가족의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족 인신매매의 배경에는 위에서 지적한 조선사회 전반의 피폐한 경제생활, 또 경제적 피폐와 함께 한 도덕적 붕괴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딸, 부인에 대한 여성천시 현상 또한 이러한 인신매매의 중요한 맥락이 된다. 유독 가족에 의해 행해진 인신매매만이 인신매매로 두드러질 가능성이 큰 이유는, 인신매매가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앞에서 본 취업사기나 납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사기, 납치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사기의 경우에는 식민지 국가의 유도와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되었다. 다시 말해, 인신매매의 중심적 주체는 가족원이나 개인이 아니라 식민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3) 납치

납치란 취업사기와 같은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강제로 끌고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제까지의 증언에서 볼 때, 납치는 취업사기 다음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연행방식이었다. <표1>에서 보면, 전체 43사례 중 6-7사례가 납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한 예인 심달연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심달연은 연행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그때 내가 열 두살 먹었던가 열 세살 먹었던가 그 정도 됐지 싶다. 우리고 농사 조금 지었는데, 일본사람들이 나와서 설치고 다니면서 다 뺏어가예. 그래가 목을 게 하나도 없다 카이, 그래가 언니하고 둘이서 나물캐러 나갔다가카이... 그걸 쫓고 있는데 차가 오디만은, 모자 쓰고 커다꿈한(커다란) 사람들이 두어 명 내리데, 내려서 쫓아오디마는 우리 광주리를 툅 툅 차뿌리는 기라. 그라디만 차를 타라꼬 그라는 기라. 그래 둘이 고만 끝안았어예. 그때 둘에 탄 사람은 없었어예. 그라더니만 나를 발로 차버리고 우리 언니를 머리꺼디(머리채)를 이래 쥐고는 차에 꼬잠아 얹데, “언니야” 하고 내가 막 울면서 그카니까 쫓아오디만 내조차도 쫓아 올리버리데 (1999: 146).“

심달연 할머니는 차에 타고 보니 “6학년 아이들 학교서 나오는 거를 마카(전부) 차에 조 실어서 데포갔”다고 한다. “막 아이들이 죽기살기로 우니까, 구둣발로 디리차루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울리(울려)요. 구둣발에 거 한 번 채이면 얼마나 아물지요 말도 모(못) 해요. 그거를 그래 맞고도요. 아아들 살점이라서 견디지, 요새 걸으마 골병이 들어가 못 살구마 (1999:147).”

이렇게 심달연의 연행과정은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후 심달연 할머니가 당한 고초를 예견하게 한다. 작년에 타게한 조순덕의 경우도 강압적 납치로 ‘군위안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조순덕은 다음과 같이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다.

“19살 가을이예요. 서울에 사는 천연니 집에서 [고향인] 함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기차타고 가다가 순사에게 잡혀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보부 계통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런 것 한 번만 당한 것은 아니예요. 그 전에 기차 타고 갈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기차가 원산 도착했을 때 일본인 순사가 날 조사하고 에세이다이인가 헤세이다이인가? 그런데 가면 일하고 돈도 준다고 해요. 나는 집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집에 연락해 준다면 집에 연락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돈 준다고 해도 강압적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예요. 두 사람. 세 사람 (1999:172).”

취업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은, 위안부 동원을 지원하는 사회체제의 성격이 이러한 ‘납치’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식민지 군부 통제는 ‘나물캐는 소녀’에게나 ‘기차여행을 하는 아가씨’에게나 누구에도 뻔칠 수 있고 그것에 항의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강요의 정도는 다르지만 황순이의 경우는, 열 세살에 “친구 셋이서 나물 캐러 갔는데 일본 남자하고 한국 남자 하나가 쪼그만 도라크 차에서 내려 과자를 주면서 “따라가면 하얀 쌀밥에 고기반찬 해주고, 뭐 과자도 주고 옷도 좋은 옷을 입혀준다”고 해서 따라간 경우도 나타난다 (1999: 222). 이러한 연행방식에는 위의 경우들처럼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지만, 거짓 유혹을 통한 연행이라는 점에서 납치와 연속선상에 있다.

다른 한편, 김유갑 할머니의 경우에서처럼, 관(시청사람)의 압력에 못 이겨 ‘정신대’로 동원된 경우도 있다. “이제 정신대는 안 가겠지 하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정신대] 2차 뽑는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시청에 가서서 싸우고 이랬다구. 우리 딸 안 보낼꺼라고, 가만 안 있겠다고... 시청 사람이 일본에 가면 잘해주고 참 좋다고 그러더라. 옷도 내주고, 뭇도 주고 그런다고 꼬여서 간 기라(1999:321).” 이 경우에는 정신대라는 동원목적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정신대 동원을 피하다가 계속적인 강압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 점에서 이 경우는 관의 압력과 정보 은폐가 결합된 납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납치는 ‘사냥’과 같이 원색적인 폭력에서부터 사기 협박, 유혹이 결합된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점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취업사기, 인신매매와 납치는 서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식민지 무단통치와 전시하의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이라는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4) 기타 범죄: 다디아스포라(diaspora), 가족파괴

이상과 같은 검증을 통하여 볼 때, 조선인 여성의 ‘군위안부’ 동원은 강제연행이라는 점

2) ‘대신마리’라는 정신대의 일본발음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음.

이 분명한다. 그것을 위하여 사용한 수단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뿐, 그 본질은 일본 식민주의 권력에 입각한 식민지 여성에 대한 강제동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같은 범죄는 강제동원은 대상이 되었던 여성에게는 자신의 고향과 나라로부터 원하지 않는 이탈, 즉 다이아스포라라는 또다른 커다란 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끌려간 여성들의 가족에게는 가족파탄과 같은 현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이는 강제동원이 식민지 시기의 한국인에게 가져온 깊고 장기적인 피해의 지점이라고 하겠다.

증언 1,2,3집 참고로 할 때, 한국인 '군위부' 여성들은 부산으로 끌려간 운두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이 아닌 외국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이들 여성이 연행된 장소는 일본, 대만, 사할린, 중국,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팔라우, 트럭섬, 사이판, 파푸아뉴기니아, 라바울과 같은 태평양 도서지역 등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실로 "일본군이 싸운 곳이면 어디든지 '위안부 소녀들'이 있었다"는 보고를 실감케 한다.³⁾ 이것이 이들 여성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고향과 땅이라는 근거지로부터의 '뿌리뽑힘'이고 추방이다. 이 결과 많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강제 연행된 장소의 물정을 전혀 몰라도주의 의미가 없었다고 증언한다. 또한 1945년 일본의 패전시에도 한국에 귀국할 방법을 몰라 막막해 하게 된다. 여기서, 패전 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 남아서 살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1996년 캄보디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이남희(훈할머니, 증언 3집 참조)와 현재까지 중국에 잔류하고 있는 한국인 전 '군위안부'들의 존재가 이런 유추를 입증하여 준다. 이들 생존자들은 한국에 돌아오기를 희망하여도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미 그 나라에 근거지를 두어 한국에서의 생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위안부' 강제동원이 그들 여성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남희 (훈할머니)를 면접하였던 정리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고향에 대한 불분명한 기억, 무엇보다도 자신이 철이 들어서까지 사용했던 말과 자신의 이름까지 모두 잊어버린 할머니의 모습 그 자체가 군위안부 정책의 만행을 충분히 고발하고 있다 (1999: 41)."

1945년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여성의 경우에도 대다수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찾아간다고 해도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한다. 그것은 자신의 '군위안부' 경험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성규범 때문이었고, 자신이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가족의 짐만 될 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증언 1,2,3집 참조). 요컨대, 위안부 경험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 이것은 생존자 위안부들에게 의지하고 교류할 집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들의 사회적 소외 문제와 직결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위안부들의 경우,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가족이 징병 징용 등으로 납치되고 사망하며 가족이 흩어지게 되는 가족 해체를 경험한다. 언니 하나에 남동생 셋이 있었던 김끝순(가명) 할머니 가족의 경우가 그 중의 한 예이다.

"동생 둘은 저 만주로 뛴산 공장으로 징용 가고 했지만 하나 데리고 사는데도 못하겠습디더, 동생들은 다 죽었지예. 그때 징용 가서 죽고 일본군에서 죽고 다 안 죽었습니꺼. 동생 서이 다 죽었어예. 다 죽고 인제 내 하나 남았다 카니꺼네. 언니도 그 때 일본서 나와서 계속 한국에 있다가 죽었어예 (1999: 243-244)."

이외에도 '군위안부'를 두었던 가족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함께 안고서 가족이 풍지

3) Psychological Warfare Team, United States offices of War Information, 1944 참조.

박산나는 예를 볼 수 있다.⁴⁾ 이상과 같은 군위안부 강제연행이라는 범죄가 단지 당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안부 여성 개인이 아니라 가족과 주위의 사람에까지 끼치는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위안소에서 자행된 범죄

(1) 강간의 성격

일본군 위안부 체제는 흔히 메이지 시대의 공창제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설명되곤 하였다. 메이지 전제주의 국가 하에서 제도화된 일본의 공창제도가 전시체제 하에서 확장된 군국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⁵⁾. 하지만, 이러한 설명으로 식민지 조선 여성에게 행해진 범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대로 조선여성에 대한 연행은 사기와 협박, 납치를 동반한 강제연행이었다. 그것도 10여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식민지 한국인은 어떠한 집단적 저항과 거부도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식민지에 대한 완전 지배라는 사회조건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공창제의 연장이라는 설명은 일본의 천황제라는 일본 '내부'의 사회성격만을 문제 삼지, 식민지라는 사회조건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공창제 모델은 조선인 군위안부의 존재조건에서 식민지성을 사상시킨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공창제도라는 설명에 따르면, 그 범죄가 주로 위안부라는 '제도'에 치우치게 되며 그 위안소 안에서 일어나 하나하나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게 된다. 이 결과, '군위안부'가 당한 폭력과 각종 괴로움은 '제도'의 결과로만 치부될 뿐, 그것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게 된다. 위안부가 위안소에서 당한 범죄의 핵심은 하나하나의 성관계에 놓여있다.

셋째, 그간의 조사에서 분명해진 것처럼, '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된 조선여성은 유곽과 전혀 관련이 없고, 성경험이 없는 처녀들이 대다수이다. 이 점은 취업사기의 외양을 띤 강제연행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점은 일본에서 모집된 '군위안부' 와도 차별성을 보여준다.

네째, 창녀제도는 성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와 성관계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위안부 경험으로 인하여 돈이나 다른 보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군표를 놓고 간 경우에도 위안소 경영자가 관리하였고 전후에 그 군표는 화폐로 환산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들 여성이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식민지인이었으므로 전후보상에서 제외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들이 겪은 성관계는 최소한의 합의도 없는 강제적인 것이었다.⁶⁾

4) 김소란의 경우,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1999:62-63), 심달연의 경우에도 가족이 풍지박산 나는 경험을 하였다(1999:168 참조).

5) 시즈키 유코, "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 여성" 정신대 문제 자료집, 1, 1993? pp.13-15; Yuko Suzuki, "The Social Milieu That Conceived the 'Comfort Women' System: Legalized Prostitution, Patriarchy, and Emperor System," presented at ICJ seminar, Tokyo, 1995 참조.

6) Hyunah Yang, "Revisiting the Issue of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The Question

실제로 '군위안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엇을 하려고 끌려왔는지 모를 어린 여성들에게 시작된 것은 강간이었다. "방 하나에 한 사람씩 딱딱 넣어놓고, 담요 두 장에 목침 하나씩 두제, 그렇게 방에 있는데...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거기는 높은 군인이 지내는 방이야. 금 줄 세 개에 별 하나? 계급이 높았지. 한 15일을 그놈 방에서 지냈는데 처음에..... 말도 마요, 생구녕을 뚫는다더니, 그 일본놈한테 생구녕을 뚫렸어. 아프다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어요 (김은혜의 증언, 1999:127)."⁷⁾

이렇게 시작된 강간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간 지속되었고, 하루에 수 십번씩 자행된 것이었다. 설사 위안소의 운영과 체제가 일본에서 이미 확립된 공창제도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선인 여성에게 자행된 강제성교는 강간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군위안부' 제도는 '제도화된 강간체제'이다. 특히 조선인 여성이 당한 강간은 식민지 전시동원체제라는 맥락에서 발생한, 이민족간 집단 강간 (Inter-racial gang rape)라고 해야 한다.

(나) 강간의 반복성

전 '군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 대 여섯 명에서 수 십명 씩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 년을 살았다고 할 때, 이들이 당한 강간의 수는 수 만번에 이르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 강간은 모든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군인은 사무실 거쳐서 앞마당에 방방이 줄을 서. 전체 한 100명 넘게 서서 기다려. 바글바글하지 뭐.... 많이 올 때는 한 사십 명 받나 봐. 씻지 못해. 끼는 거 저거하니까 아파. 아픈 데 어디 생각해 주나. 나만 아팠지 (김군자의 증언, 1999:80-81)."

"군인은 보통 하루에 열 명도 더 받지. 열댓 명씩 한 스무 명씩 낮에도 받고, 오후에 병사들이 많이 오지, 신발도 안 벗고 뒹비는 거야. 신발도 옷도 벗을 필요도 없고 잠자리하고 가고 그랬어. 아유 그 일은 잊어버려야지 (최화선의 증언, 1999:203)."

"하루에 열댓 명에서 그렇게 겪는가 봐. 아유, 그런 어리니 무리하게 당했으니까 피가 그냥 이렇게 막 흘러갔고 며칠 아파갔고 오줌도 못 뚫어. 막 그냥 울고, 밥도 못 먹었고, 얼마나 참말로 죽겠단고 (황순이의 증언, 1999:226)."

"이틀 뒤부터 군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프놈펜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군인들이 왔어요. 처음 온 군인은 낮에 계급이었던 것 같아요. 프놈펜에서는 군인이 많이 왔어요. 많이 오면 20명, 적으면 10명.... 프놈펜에서는 찾아오는 군인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와 있어도 밖에서 줄 서 있으면서 '쫄토' '쫄토'(어서, 어서) 하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고 했어요 (이남이의 증언, 1999:28-29).

"거기는[중국 해남도] 주둔지로 전부 군인, 그것도 육군이었다. 어찌나 바글바글한지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십 명씩을 상대해야 했다.... 보통 하루 사오십 명 씩이나 됐다. 옷을 입고 벗고 할 사이도 없었다. 문 밖에서 줄을 섰다가 한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또 들어오곤 했다. 한 사람에 5분, 10분도 채 안 걸렸다. 어떤 사람들은 각반을 풀지도 않고 바지만 내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하영이의 증언, 1999:282)."

"다른 데서 군인들이 오면 밤에 데리고 나가기도 했다. 난 거기서 '하루에'로 불리웠다. 군인들이 이름을 부르면 여자들이 담요를 들고 군인을 따라 나가야 했다. 캄캄한 야산에서 몇 사람인지도 모르는 군인들에게 당하곤 했다. 너무 당해서 땀이 아파서 걸음을 못 걸으니 까 데리고 간 군인들이 끝까지 피하여 천막으로 데리고 왔다. 그 때의 비참한 느낌이란 정말

of Truth and Positionality, *position-east asia culture critiques*, 5-1, 1997 참조.

7) 최화선의 증언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강간이 발견된다 (1999:200 참조).

말로 다 못한다 (강덕경, 1993:298)."

한 일본 군의관의 보고에서, 한국인 '군위안부'는 일본 군인들의 성병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적인 공중변소'라고 표현하였다.⁸⁾ 식민지 외국인 조선 여성들은 일본군인의 성욕과 긴장 해소를 위한, 또한 자국민과 현지민의 강간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수물자였다. 여기에서 이미 군위안부 체제가 위안부를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인간 존엄성의 박탈 체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이 점은 구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와 같은 상황에서 전쟁 중 여성에 가한 폭력과는 상이한 측면을 나타낸다. 그러한 전쟁에서 여성에 가한 폭력은 '적군' 혹은 '적군의 여성'에 가하는 공격이었다.⁹⁾ 하지만, 조선인 위안부들과 같은 존재는 전쟁의 적으로서 위치조차 갖지 못한 '물자'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존재 말살의 상황에서 '군위안부' 여성들의 정신과 육체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 범죄성을 증언에 입각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2) 구타 및 고문

'군위안부'의 생활은 맞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만큼 구타는 '군위안부' 체제에서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함흥 가는 기차에서 납치되어 사할린 지역에 끌려간 조순덕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 집에 들어서자 나가지 못하게 하여 꼼짝 못 했어. 낮에도 나가질 못했어. 말 안 들으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맞고 당하고 맞고 당하고 그랬어요 (1999:176)."

이렇게 강간에 대한 여성들의 반항에 대하여 일본 군인은 갖은 폭력으로 말 잘 듣는 '군위안부'를 만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니깐 주인이 내 머리고양이를 잡아끌고 어느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에서 전기 고문을 당했다... 그는 전화 코드를 잡아 빼서 그 줄로 나의 손목, 발목을 감았다. 그리고는 "고노야로" 하며 전화통 손잡이를 마구 돌렸다. 나는 눈에 불이 번쩍 나면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더는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울부짖으며 두 손으로 짹짹 빌었다 (이용수, 1993:127-128)."

"[처음] 몽고로 간 그해, 어깨에다 뽕뽕뽕뽕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 일본 군인이 내 머리를 총대로 때리더라니께. 내가 말 안 듣는다고, 아이구 어찌나 무섭던지... 처음에는 나도 일본말 할 중도 모르고,,, 그러는디도 자꾸자꾸 드리누우라 그러는 기라. 그래 난 안 한다고 탁 뿌리치고 차고 나갈라고 하면 끌어 잡아당기고 도 나갈라고 하면 끌어 잡아 당기고... 그래 갖고 총대로 막 사정없이 쥐 매 머리를 박아뿌린 기라. 나는 뽕 쓰러져버렸지요¹⁰⁾ (황순이의 증언, 1999:224)."

8) Tetsuo Aso, "Karyubyo no sekkyoku-teki yoboho" [Methods to prevent venereal disease](1936),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 자료집 2, p.85.

9) Renata Salecl, "The Fantasy Structure of War," in *The Spoils of Freedom*, New York: Routledge, 1994; Alexandra Stiglmayer, ed., *The War against Women in Bosnia-Herzegovina*, Lincoln, Ne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4 참조.

10) 황순이 할머니의 머리 정수리는 지금도 정상인과는 달리 손바닥만큼 내려앉아 있고 그 정수리를 빙 둘러 머리뼈가 푹 볼거져나와 있다.

“아래가 하도 아파서 제대로 상대를 못 해주면 짐승 때리듯 나를 때는 거야. 그때 머리를 하도 맞아서 지금도 이렇게 머리가 자주 아픈가 봐 (김은례의 증언, 1999:128).”

“일본말 하는 데 알아들어, 오십 사년전인데 뭘. 거절해서 두드려 맞았지, 귀통백이를 얻어맞았어. 그래서 고막이 터졌어... 이쪽 저쪽 양 쪽 때렸는데 오른 쪽 귀가 터졌어. 안들려, 지금도 (김군자의 증언, 1999:81).”

이렇게 당시의 육체적 손상은 오늘날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 1942년 열 다섯 살에 방직공장에 간다고 하여 끌려간 최화선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말한다.

“그 어린 것들을 막 몇 놈들이 해코지를 하니깐 배겨날 수가 있어야지. 내가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못 한다고 그러니까로 입에 다 대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입에도 갖다 넣었는데, 내가 깨물었어.... 그러자 장교가 그 즉시 그냥 나를 뺨을 몇 대 때리더니 보초를 불러가지고는 지키고 서서 때리라는 거야. 밥이었지만 비행기 때문에 물을 못 켜거든, 보초가 나를 그냥 끌고 나가서려 몽둥이로 마구 그냥 아무대나 패웠으니, 내가 몇 대 맞고 뺨으니까 까무라친 나를 창고에 갖다 넣은 거야....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낮이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아팠는지, 뼈가 다 으스러진 걸 그대로 갖다 붙여서 시방 다 나았는데도 이렇게 됐지.¹¹⁾ 오늘 쪽 팔이 지금도 얼마나 아픈지(1999:202).” 때렸던 그 “계급 높은 군인”은 그 곳에 오래 남아서 “다른 군인을 못 받게 하고 한 열흘은 그 놈이 혼자서 그랬어”라고 최화선은 술회한다.

이렇게, 구타는 위에서 살핀 지속적 강간과 교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구타는 ‘강간’을 강제하기 위한 고문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성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음에서 이 측면에 대하여 주목하여 보기로 하자.

(3) 정신적 충격과 공포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은 공포와 충격 속에서 생존하고 있었다. 열 두 세 살 때, 들에서 나물 캐다가 끌려간 심달연은 그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감(고함)을 한번 지를 때 퍼득(금방) 가야지 안 그라마 요마끔한 칼로 가 땡기며(가지고 다니면서) 팍 던지예... 나도 저게서 누가 오라카는데 퍼득 안 온다고 먼 데서 쥘 던지가지고 여게 척 꿈히예. 허벅다리 여기에 숭(흉터) 있어예, 칼 숭터.... 여도 그래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다(1999:148).” 계속해서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이다.

“한날 저녁(저녁)에 뭐라 한 바리(마리)가 들오디만은 옷을 싹 끄집아땡겨 뿌리는 기라. 그래가 어데로 날 땡고 갔어예. 거가 어덴지도 나는 모리겠는데 높은 사람인지 뭔지한테 가서 데리고 왔다 이카고, 그래가 옷 비끼라(벗기라) 이랬는 모양이라. 그레 여는 다 벗고 아래쪽은 안 벗고 이래가 있으니까 안 벗는다고 막 머리카는(뽀라고 하는) 기라. 머리카민서 발로 막 들고 차고 머리고다(머리채)도 쥐고 막 땡기고 머리를 바닥에다 대고 콕콕 들이박고 이카더라카이(199:149-150).”

할머니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니 [정신이] 안 들고 우야는교, 그레노니 전신이 멍이 막 들고 대가리에는 물맹이도 백이가 있고, 내중에는 부어가 손도 못 대겠고 이렇데요(1999: 150).” 실제로 할머니는 해방 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오락가락” 해서

11) 최화선 할머니의 오른쪽 팔은 지금도 뼈가 으스러진 상태로 약간 울퉁불퉁하고 단단하다. 지금도 그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지 못한다.

계속 치료도 받고 정상인 구실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정신이 다 빠져나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라이 혼이 다 나가 뽀다카이, 정신없어예, 거 갔다 온 사람치고 정신 말뚱말뚱한 사람은 내 회한하다 싶으다카이, 두드려 맞는 것만 해도 두드려 맞고 나쁜 정신 하나도 없어예 (1999:148).”

심달연 할머니가 이야기하듯이 이런 정신적 충격과 정신나감은 할머니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사할린 지역에서 4년간 ‘군위안부’로 있었던 조순덕의 경우도 정신병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말한다. “난 청량리 병원에 갔기 때문에 영 기억을 못 해요...뭘 들으려고 해, .. 청량리 병원 나와서 배추를 앞에 두고 다듬을 줄도 모르고 목욕할 줄도 몰라 주위에서 도와 주었어요 (1999: 170).”

기억상실증은 그 정의상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 고리를 가진다. 따라서 왜 기억상실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건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기억상실증으로 나타난다. 언니와 함께 끌려갔던 김소란의 경우 역시 해방후 정신병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집 나와 가지고 장롱에 걸려 있는 옷을 방에 내놓고 불지르려 하고, 내 혼자 산에 올라가려 그러고 굉장했다고요. 병이 심해가지고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약 먹고, 내 혼자만 가슴에 여 놓고, 누구한테 말할 때는 없고....” 병원에 가서 과거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라고 하여도 ‘거기 갔다 온 이야기’ 만은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원인은 그건데(1999:65).”

“맨날 쫓겨온 사람처럼 벌벌 떨리고 술 한잔 마셔도 긴장되(1999:115)”었다는 김옥주 할머니처럼, 불안, 정신병, 기억상실증은 ‘군위안부’ 체험이 남긴 현재의 후유증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후유증을 통해 우리는 위안부 경험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여기서 앞에서 살펴 본 ‘지속적 강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상, 하루에 군인을 몇 명 상대하였고,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 등 강간에 관한 부분이 생존자 ‘중군위안부’들이 가장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할머니들의 증언이 세상에 공개될 때는, 마치 할머니들이 고발하듯이 적극적으로 말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현재 70-80대이신 할머니들은 이 부분의 체험을 가장 말하기 어려워한다. 할머니 중에는 이 측면에 대한 이야기는 회피하시는 분도 많다. 이것은 위안소에서 강간이 강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수치, 억압, 분노와 같은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다층적 범죄라는 것을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위안소에서 당한 강간에 대한 명명조차 잘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손님을 받았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부 문제의 범죄상이 조명되지 않았는가를 반증한다. 강제로 끌려가서 셀 수 없는 강제성교를 당해놓고도 그 범죄상을 지적할 언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침묵의 공간 속에서 전 ‘군위안부’ 여성들의 정신질환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오늘날까지 위안부 체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분노와 억압의 객관적 조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4) 생식기 파손과 성병

가공할 만한 숫자의 강간 경험은 대다수 ‘군위안부’ 여성들의 생식기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특히 나이 어린 소녀로 끌려간 경우, 반복되는 강간으로 인하여 성기가 ‘찢어졌다’는 체험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미 1934년, 열 두살의 어린 나이로 끌려가 황순이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살이 아파서 죽었다. 막 눈물이 절로 나느니라. 밥도 못 먹지, 이리 날만 셋다 하면 군인들이 올 생각에 그만 뚝 지옥에 들어가는 거 같애...나는 개나 마찬가지로... 하루에 열댓 명이라 그렇게 겪는가 봐. 아유, 그런 어린 게 무리니(무리하게) 당하니까 피가 그냥 이렇게 흘러갔고 며칠 아파갔고 오줌도 못 뚫어. 막 그냥 울고. 밥도 못 먹었고, 얼마나 참말로 죽었던고 (1999:225).”

심달연 할머니는 생생하게 그때를 기억하여 다음과 같이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주었다. “아이고, 안 들어가는데 그걸 대고 억지로 쑤시고 넣을라카이 막 찌지는데 얼마나 아프고, 그래 죽는다고 발로 툭툭툭툭 그리다가 내중에는 그냥 시퍼러이 넘어가 뿌렸는니라. 이래가 또 오줌을 한 일주일 동안 못 누웠는 기라...오줌은 놀라 캐도 오줌이 생전 안 나와예. 여 배는 아파 못 전디졌고, 여 밑에는 찌저가 피가 나와서 흥건하니 이래가 있고 그랬어예... 그래가 있는데도 데코가서 저거 하고 싶으면 또 하고 이틀날 저녁 되면 또 와예, 와서 또 해예, 이라니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죽어버리는 기라. 나는...그래 거서 한 일년 있다가 또 판데로 고질고 가더라고... 만준동(만주인지) 어덴동 천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그런데] 뭐 걸은 놈들이 들어오디만은 좋다 카고 또 할라고 대드는 기라. 여를 보니까 퉁퉁 부어가지고 있고 피가 질질나고 막 이렇거든, 이래가 전신이 다 찌저가 알긋고 이랬어예 (1999:151-152).” 많은 여성들의 토로한 이러한 성기 파손은 생식기 손상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성병에 감염된 여성들도 다수 나타난다.

김군자 할머니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병 걸려본 적 있어. 매독. 치료받았지 (1999:81),” 김은례 역시 매독에 걸렸었다고 한다. “아래에 병이 나면 오리같이 생긴 걸 아래에 넣어서 검사하는데, 한 반 년 정도 있으니까 바이도쿠,[매독]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질 안에 염증이 생겼는지 근질근질하다가 퉁퉁 부어서 무척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질 속을 들여다보더니 “아직 괜찮다, 며칠 더 있다 켜면 되겠다”며 그냥 군인들을 받게 했어요. 내가 아래가 아파서 못 하겠다고... 애걸을 하는데도 계속 군인을 받게 하대요... 아래에 고름이 차 부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 이(위안소 관리인)는 그냥 칼로 고름 찬 곳을 쭉 찢더니 숨에 하얀 가루를 묻혀서 넣어주데, 그리고는 다 나았다고 하면서 다시 일하라고 하대 (1999:130).”

이러한 성기질환과 성병은 이들 위안부 여성들이 생존하여 한국에 귀국하였다고 해도 자녀를 낳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대부분의 생존 ‘군위안부’는 정규결혼을 하지 못하였다. “[밑이] 다 찌저 나발 같은 거 어는 놈이 달고 살며, 남자 그거 몸싸리고도 안 나느나. 내사 사나(사내)라 카는 거는 풀도 싫고 말도 하기 싫다(1999:165)”라는 심달연 할머니 말처럼 이미 이 여성들은 남성과 ‘정상적’ 관계를 가지기에는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성(sexuality)은 너무나 많이 파손되어 버렸다.

한편, ‘군위안부’ 당시의 성병이 지속되어 되물림된 경우도 나타난다. 위안부 시절 매독에 걸렸던 최화선이 그 중 한 경우이다. “거기서도 606호 많이 맞고 한국에 나와서도 꽤 많이 맞았어요. 병 없는 여자가 별로 없어. 샷썩 끼는 군인은 끼지만은 안 끼는 군인이 더 많아...[한국에 와서] 거의 치료가 된 다음에 아이가 하나 생겨서 딸을 낳았어. 내가 스무두 살 때였어. 6.25 사변 날 때 [한국인 정용 남자로 군위안부 시절에 만난] 남편과 같이 있었어. 이북에서 의용군 보낸다고 붙들어가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대구.... 시집갔던 딸은 아기가 자궁 바깥에 임신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검진하니 병이 나온다는 거야. 매독이. 사돈 쪽에서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 했지. 의사

가 하는 소리가 부모한테 물려받을 수 도 있고 윗대 조상들한테서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1999: 215)."

강덕경은 군위안부 시절의 고통이 생식기에서 연속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거기 갔다와서 특히 몸이 아프다. 젊었을 때는 다달이 월경을 할 때마다 이틀씩은 방을 해매고 다녔다. 하도 아파서 주사를 맞아야 했다. 그리고 자꾸 하혈을 했다... 너무 아파서 이것만 나오면 발가벗고 출이라고 출 것 같았다. 병원에서 자궁 내막염, 나팔관 이상이라고 했다(1993:282)." 이렇게 '군위안부' 피해는 그들의 성기, 자궁, 그리고 전육신에 상해를 가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후 성기파손, 불임, 성병, 남성기피 등으로 지속되고 있다.

(5) 임신과 인공중절

반복되는 강간 속에서 '군위안부'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의 가능성에 언제나 놓여 있었다. 실제로, 임신을 원치 않은 것은 여성들이라기보다는 일본군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임신이 되었을 경우, 대부분 인공중절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하자.

"임신하면 주인이 유산시켜. 나는 생리가 열여섯에 시작해서 마흔 여덟에 끊어졌지(침묵). 유산한 적이 있어 (김군자의 증언, 1999:82)."

"임신 했지, 많이 뻗어. 주인이 나를 민간 병원에 데리고 가서 빼내야. 눈치 안 나게 빼내. 낳으면 자기 손해잖아. 니 애 낳아갖고 어떻게 살 건데 그래. 많이 뻗어. 여자 중에 (임신)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샷루 끼면 되는데, 샷루 안 낄라고 하는 놈들이 있거든 (김옥주의 증언, 1999:103)."

또한 무리한 임신중절로 인하여 재생산 능력이 박탈된 경우도 있다. 증언 1집에서 황금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임신이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606호 주사를 맞으면 몸이 붓고 으시시 추우면서 하혈을 했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가 자궁 속을 긁어냈다. 이렇게 서너 번 긁어내면 임신은 더 이상 되지 않았다(1993:100)." 이러한 인공중절은 '군위안부' 여성이 일본군인들의 성욕충족을 위한 군수물자였지 재생산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의 구체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 점은 일본에서는 여성에게 다산을 장려하던 정책과 대비되는 것이기도 하다.¹²⁾ 이렇게 조선인 위안부 여성의 생식기를 파손시키고, 임신을 막았으며, 임신했을 경우 인공중절을 실시한 일련의 행위에서 조선인 '군위안부' 제도는 조선인에 대한 인종말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¹³⁾

(6) 유아유기 및 살해

(현재로서는 사례가 잘 발견되지 않음. 북한 사례가 있다면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12) 당시 일본의 인구 재생산 정책에 관해서는 시즈키 유코("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 여성," 한 국정신대대책 협의회 (편), 자료집, 1, pp. 13-15)를 참조.

13)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경상 할머니는 자신이 임신하였을 때, 한 일본병사가 "우리는 조센징의 아이가 필요없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배를 칼로 그었다고 증언한다 (다카시 이토, 「천 웃고름 입에 물고」, 풀빛, 1994, pp.117-122).

(7) 노예화(enslavement): 감금과 감시

‘노예화’는 위안소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군위안부’ 여성들은 어떠한 종류의 자주권도 박탈당하고 인격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노예 상태에서 생존하였다. 사실상, 이제까지 살펴 본 강간과 폭력, 질병 등이 이미 노예 상태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이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통하여 나타난 ‘군위안부’의 노예상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남자가 지켜. 감시가 얼마나 심한데, 감시하려고 남자가 있는 거야. 에핀(아편)한 사람은 있었어. 그 사람은 나이 좀 먹었더라고 (김군자의 증언, 1999:82)”

“화장실은 밖에 보조들 사이에 있었어. 그래서 화장실도 가려면 보조 뒤로 해서 가야 했어. 보조들은 겨울이면 오바를 입고 털모자 쓰고 그래 (최화선의 증언, 1999: 205).”

“거기 오바상, 오지상 (여성들을 끌고 가고 위안소를 경영했던 사람들)은 우리 감시만 했어요. 특별히 지킬 필요도 없었어요. 외파로 떨어져 있었으니까(김소란의 증언, 1999:55).”

필리핀 마닐라로 끌려갔던 김소란의 증언처럼, 많은 여성들은 낯선 외국으로 연행되어 그곳의 지리와 물정을 몰라서 도망갈 수도 없었다고 증언한다. 도주한 경험이 있는 조순덕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밤에 도망가다가 얼마 못 가 붙잡혔지요. 아무도 없는 것 같더니만 나가니 헌병들이 죽 깔려 있고 부대도 군데군데 이썩썩. 헌병은 우리를 붙잡아 그 집으로 넘겼어요. 두 세 명이 막대기에 고무인지 뭔지를 단 채찍으로 우리 등을 마구 때려요. 처음에는 아프니까 말도 못 하고 맞다가 너무 심해 큰소리를 마구 질렀더니 그만두고 가두었어. 사실 거기는 어디가 어딘가 길을 몰라. 가려도 해도, 나가도 맞지만 (조순덕, 1999:174).”

이렇게, 조선인 ‘군위안부’ 여성은 이국의 유배상태 속에서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보다 효율적인 통제와 노예화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한편, 강제로 끌려와서 반복적인 강간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수 운영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의 위치에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을 들어보자.

“자살하려고 했을 때도 주인이 돈 댔지. 이것이 나중에 빚이지. 빚인데 기양(그냥) 있는 거 같으면 꽤 많은데. 예를 들 것 같으면 만 원이면 그게 이자가 붙는거야. 이자가 곱으로 붙는거야 (김옥주의 증언, 1999:103).”

“군인에게서 받은 돈을 주인에게 갚다주면, 나중에 재산해 빚을 까나간다고 했지만 처음 색인 빚은 계속 늘어갔다. 옷 사 입고 화장품도 사니 빚은 줄기는 커녕 늘어갔다... 나는 그저 빚이 많다는 것뿐, 얼마인지도 몰랐다. 빚은 주인을 옮겨도 그대로 떠안고 가는데, 나는 만주에서만 네 번 정도 옮겼다 (조남례의 증언, 1999:268).”

“처음 팽호도 조선관에 나를 넘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받아간 돈이 내게 빚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다. 나를 꼬여가 팔아먹은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른다. 주인은 많다고만 했다 (하영이의 증언, 1999:281).”

이와 같이 위안부 여성에게 ‘빚’은 꽤 만연해 있던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살펴 본 취업사기와 결부된 인신매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여기서 ‘군위안부’ 제도를 일본식 공창제도의 운영방식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운영방식이 위안부들을 위안소에 묶어두고 위안소 경영인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부채’는 감시와 연장선상에 있는 위안부 통제방식에 다름 아니다.

(7) 살해 및 살해위협

현재의 모든 증언 자료는 생존 여성들의 증언에 입각해 있으므로, 살해된 여성의 경험에 대해서는 들을 수가 없다. 하지만 생존 여성들이 체험한 위협이나 목격을 통해 '군위안부' 생활이 목숨의 위협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때 그만 그 일본 군인 하나가 그냥 칼을 빼가지고 내 목을 칠라고 하는 기라. 차라리 그 때 죽어버렸으면 되는 건데 그랬어 (황순이의 증언, 1999: 225)."

또한 여성들이 자살한 경우를 목격한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거기 같이 있던 여자들 중에 몇 명은 죽어 나갔어요. 황해도 여자 하나가 나무에 목매달아 죽고, 또 하나는 자고 있는 군인한테서 몰래 총을 훔쳐다가 자기가 총을 쏘서 죽고, 또 아편해서 죽은 여자, 참 많이 죽었어요 (김은혜의 증언, 1999:133).

이러한 살인미수 혹은 자살은 이제까지 살펴 본 각종의 폭력이 가장 극단화된 형태로, 폭력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매를 된 통 맞은 다음에는 무서우니께 반항 안 하지, 거기서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께.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끌어내다 죽이는 거야"라는 최화선의 증언처럼(1999:203), '군위안부'는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 아닌 존재들이었다. 바로 이 점이 위안부들의 노예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9) 기타: 아편주입, 전시 위협

위안소에서 여성들에게 만연하였던 아편주입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성들 겪은 고통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증언 1집에 수록된 하군자의 증언이다.

"내가 거기 가서 2,3년 지났을 무렵 고향으로 편지를 대신 써준 평양 여자가 아편중독으로 죽었다. 그 여자는 밥상에서 하얀 가루를 코로 들이마시곤 했다. 뭐냐고 물으면 약이라고 했다. 아편을 먹고는 활기가 나서 춤을 추고 난리였다... 여자들은 주인 몰래 아편을 했다. (1993: 81-82).

"아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정말 중국에는 아편쟁이들이 많대요...조선인 장사들이 몰래 와서 파는데 나도 한 번 찢어보니까 세상이 내 세상이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함께 있던 여자들도 몰래 아편을 많이 했어요. 군인들이 찢어줬어요. 돌키면 큰일나지, 군인은 아편을 못 찢르게 돼 있었거든. 그래도 군인들이 몰래몰래 찢어줬는데, 같이 아편 찢르고 그걸 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여자도 찢러주고 자기들도 찢르고, 그렇게 했어요 (김은혜의 증언, 133-134)."

한편, 이상에서 살펴 본 전반적인 생명의 위협은 군위안부 제도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쟁 속에 있었다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군위안부'들은 위안소에서의 학대와 폭력 뿐 아니라 전쟁의 공포와 위험에도 마찬가지로 노출되어 있었다. 심달연은 그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폭탄 길은 거를 하도 많이 터져(터뜨려) 노니까 냄새가 그케 나고 눈도 못 뜨겠고 어떤 때는 숨도 못 쉬겠고 이랬어... 그래서 마카 이래 따에 딱 엎드리가 땅공기 그것만 마시고 엎어져 있어라카데, 우리는 그 때 섬에 있었어 (1999:155)."

몽고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했던 황순이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군인들은 어디로 가겠다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해. 순전히 비밀히 덩기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도 따라 덩기는 거지(1999:230).”

다시 다음과 같은 이상옥의 증언은 위안부들의 전쟁체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파라오에서) 폭격이 심해 의사와 간호부와 헤어져 이와야마로 피난갔다. 먹을 게 없어서 냇가에 있는 커다란 달팽이를 먹었다. 그곳 사람들은 독이 있다고 먹지 않았다. 나중에는 도마뱀과 쥐도 산 채로 잡아먹었다. 어느 날 밤에는 군인이 준 항고(일조의 취사도구)에 쌀을 몇 줌 꺼내서 주위를 더듬거리며 물을 붓고 불빛이 안 보이게 밥을 하다가 폭격을 당했다. 그 밥을 들고 정신없이 도망다니다 아침에 보니 밥이 시뻘겟다. 사람이 죽은 핏물을 받은 것이었다 (1993:194).”

이상과 같이 볼 때,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당한 피해는 육체와 정신, 과거와 현재에 미치는 다층적인 것이다. 그것은 집단강간, 구타, 각종 폭력과 고문, 생식기 파괴와 성병 뿐만 아니라 전쟁이 주는 생명의 위협과 도덕성의 말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위안부가 겪은 피해는 이렇게 ‘총체적 인간성 말살’이라고 할 수 있다.